

# 장애물 없는 진안군 만들기 최선

###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전동휠체어 비치 대여 등 보행환경 개선 추진

진안군은 다름을 존중하고, 가치를 만드는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관 시설 등 민간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무장애 도시인 광주 남구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실시됐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비롯한 보행약자가 보행로 이용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안읍

도시지역 내 횡단보도 15개소 및 보행로 경계석 1,016개를 낮추는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는 횡단보도 경사 기울기를 기준(1/18) 이하로 낮추고, 보행로 간 높이차를 2cm 이하로 낮춰 휠체어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애 없는 관광을 위해 마이산 남부와 북부에 장애인 및 어르신들의 탐방편의를 위한 전동휠체어를 비치했다.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판단 후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부차량통제소 또는 관광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관내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4개소(안천면 지사마을, 정천면 상항마을, 상전면

원가막마을, 부귀면 가세마을)를 선정해 분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3개소와 소규모 공공이용시설 1개소에 경사로와 핸드레일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군은 추후에도 편의 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공공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 문턱낮추기 사업을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는 장애인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아니며 노년층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진안군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다름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 질의

### 신갑수 의원, "가로수 농작물 피해보상·자살예방 방안 마련해야"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 신갑수 의원(나 선거구)은 2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신갑수 의원은 "진안군은 현재 121개 노선 323.21km에 6만8,300여 본의 가로수를 조성하여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주변 농작물 피해 가능성과 사후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군도 가로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태가 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바른 가로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식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그 지역에 맞는 수종과 식재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갑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민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민규 의원은 "인삼가격 폭락 따른 대책 마련 시급"이라며 "인삼가격 폭락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우리군에서 운용 중인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농산물 가격의 차액지원과 유통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금을 활용한 실질적인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민규 의원은 "우리군은 명실상부 전국 유일의 홍삼특구로 인삼가격 폭락과 인삼산업의 문제는 홍삼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며 질문을 마쳤다. /진안=우태만 기자

## 김민규 의원, "인삼가격 폭락 따른 대책 마련 시급"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선거구)은 2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민기인력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과 "가축시장 친화적인 지원사업의 촉발위탁 방안 마련"에 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옥주 의원에 따르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력증개센터도 단순 간식비 지원에 그치지라 주말휴무, 농민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마저 원활하지 않아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무주군과 괴산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을 언급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 한우만의 차별성과 개량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축시장 친화적인 검사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협에 모금채취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옥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를 막을 수 없지만 농촌을 살리는 길은 다양하다"며 "집행부에서는 농민을 위한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정옥주 의원, "농민기인력부족 대책 등 농민 위한 정책 앞장서 달라"



진안군의회 장수읍 표창패를 전달해 양성평등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수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합창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표창패를 전달해 양성평등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수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합창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용담댐 보조댐 건설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 무주군, 보조댐 건설 공감대 형성·여론 조성 위해

무주군이 정부에 용담댐 보조댐 건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용담댐 보조댐 건설 건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조댐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성으로 용담댐 보조댐 건설에 대한 분위기가 전환과 활로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군은 용담댐 하류의 하천 오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안원수시설로 '용담댐

보조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에 건의하는 만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 군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서명운동을 펼치며, 오는 11월 5일까지 결과를 취합하고, 오는 11월 15일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은 민원봉사과를 비롯해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전 군민들의 서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앞

서 군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읍·면 마을, 기관 및 단체, 관내 학교, 출향민 단체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계속된 퇴적물에 따른 수리하와 유수장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군민들의 의지를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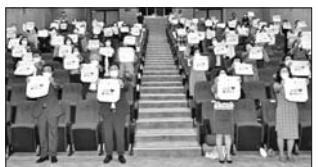
한편, 군은 용담댐 준공(2001년) 후 하류 하천 물에 불어 있는 옹이(더러운 흙)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 친수환경조성으로 하천의 건강성 개선과 지역발전은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은 지난 28일 한누리리당 소공연장에서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1898년 한국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 발표'인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념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행사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해 지정된 날이다.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8일로 연기돼 이뤄졌으며, 장영수 군수와 김용



문 의장 및 의원, 박용근 도의원, 여성단체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장 및

장수읍 표창패를 전달해 양성평등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광수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 모두 함께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고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역량강화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남녀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합창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치목지구

###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화

무주군 치목지구의 개별토지 경계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상면 과목리 치목마을 일원에서 추진 중인 치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개별토지의 경계조정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

적상면 과목리 치목마을 일원으로 628필지에 대상 면적은 40만9,907㎡다. 지난 8월말까지 현황 측량을 마무리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치목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 운영'을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운영했다.

특히 군은 토지소유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거주하는 곳에 방문하여 경계협의를 위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경계협의를 완료되면 지적확정조정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소하천 변 안전시설 미흡구간 가드레일 설치

무주군이 소하천 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35km 구간에 낙상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하천 주변 위험지역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와 2차 세부점검 및 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최종 사업 대상지로 무풍면 쌍골천과 안성면 도촌천 등 18개 지구를 확정 한 상태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하천 변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총 사업비 3억여 원(군비)을 투입할 예정으로 30일 공사를 추진을 위한 지구별 설계 및 발주에 들어간다.

/무주=전문선 기자